

# 『出家とその弟子』의 思想的 考察(Ⅲ)

-佛敎의 ‘他力信仰 意識을 중심으로-

曹起虎\*

## 目次

1. 시작의 글
2. 倉田百三의 宗敎的 心境 변화 과정
3. 『出家とその弟子』에 나타난 佛敎的 ‘他力信仰 意識’
  - 3.1 『歎異抄』를 통한 倉田의 ‘타력신앙’ 의식
  - 3.2 作品을 통한 ‘念佛’ 행의
  - 3.3 作品을 통한 ‘祈禱’ 의식
4. 마치는 글

## 1. 시작의 글

일본 다이쇼기(大正期)에 문학적으로 크게 활약한 구라타 하쿠조(倉田百三, 1891-1943)는, 조도신쥬(淨土眞宗<sup>1)</sup>)의 창시자 신란(親鸞, 1173-1262)에 의해 이루어진 사상체계를 『出家とその弟子(출가와 그 제자)』(大6)<sup>2)</sup> 등의 작품으로 기술한 극작가이자 평론가이다.

\* 원광보건대학 교수, 일본근대문학

1) 親鸞에 의해 이루어진 불교의 한 종파로서 주로 念佛과 祈禱에 의한 信行을 강조한다. 후에 소위 ‘親鸞思想’을 형성해 나갔다. 오늘날 이 親鸞思想은 비단 淨土眞宗만의 사상이 아니라는 점이 차차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그것은 宮城顯가 『親鸞思想の普遍性』를 통해, 제1장에서는 세속화하는 종교상황을 언급하고, 제2장을 통해서는 淨土眞宗 교단의 기반을 되물으며, 제3장 親鸞思想의 普遍性이라는 타이틀을 통해서는 그 보편성을 규명하여 세상에 알리고 있다는 내용만으로도 알 수 있는 점이다.<宮城顯(1996) 『親鸞思想の普遍性』, 法藏館, pp.1-103 참조>

2) 노벨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작가 로망 롤랑은 이 『出家とその弟子』의 영역본을 읽고, “한 사람의 시적(詩的)인 매력과 미묘한 부드러움과 그 꽃향기에 우리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의 회곡을 현대세계의 종교적 작품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것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 그 힘은 오늘의 문학 중에서 매우 희귀한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倉田에게 보냈다. 그 이후 그는 이 작품이 프랑스어판으로 번역·출판되도록 힘썼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를 접한 요시다 세이이치(吉田精一)는 로망 롤랑이 이 작품을 읽고서 “『유럽의 정신』과 『동양의 정신』이 결부되어 피게 된 훌륭한 꽃”이라면서, “이 작품이야말로 유럽의 각 국어로 번역되어 비상한 반향을 얻고 있는 국제적인 명작”이라 찬탄하고 있다.<吉田精一(1983) 『この本について』, 倉田百三 『出家とその弟子』, 偕成社, p.1 참조>

시라카바파(白樺派)의 무샤노코지 사네아쓰(武者小路實篤)<sup>3)</sup>와 동시대에 활약한 소위 '사상청년(思想青年)<sup>4)</sup>이라 불리는 倉田는 이 회곡작품을 집필함으로써 당시의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크게 사랑을 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倉田의 영향을 받은 여타의 문학자들은 倉田論에 관한 한 <出家とその弟子>를 축으로 하는 이론을 떠나감으로써 <親鸞 붐><sup>5)</sup>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倉田가 이모<sup>6)</sup>로부터 『歎異抄(탄니쇼)』<sup>7)</sup>를 입수하여 탐독한 것은 그가 훗날 <기독교·잇토엔(一燈園)<sup>8)</sup>·淨土眞宗라는 불교>의 순으로 종교적 체험을 하기에 앞서서, 타력신앙(他力信仰)<sup>9)</sup>이라는 종교적 특징을 그가 줄곧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해도 좋다고 본다. 淨

3) 武者小路實篤는 「倉田君の思い出」라는 글(『日本現代文學全集月報84』<昭42.9>)을 통해 “오늘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책(『出家とその弟子』)은 팔렸다. 그만큼 이 작품은 독자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말함으로써 倉田의 문학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田中實(1990) 『『出家とその弟子』と念仏思想』『國文學解釋と鑑賞』<第55卷 12號>, 至文堂, p.51에서 재인용>

4) 이처럼 불리게 된 것은 倉田의 사상체계가 불교적이면서도 기독교적이라는 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겐모치 타케히코(劍持武彦)는 “倉田의 思想遍歷(사상편력)에는 親鸞思想에 깊이 있게 경도된 나머지, 이미 그 자신의 내면에 있었던 기독교주의 프로테스탄티즘과 명합(冥合)하여 독자의 '상(想)'을 얻고 있다.”고 말한 데서 이 표현은 더욱 적확하다고 할 수 있다.<劍持武彦(2002), 『“魂洋才”への疑問』, 安森敏隆ら 編 『キリスト教文學を學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p.180 참조>

5) 메이지(明治) 이후 근대일본문학을 통해 '근대불교가 중세와 같이 번성하지는 못했지만 親鸞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적 활동이 왕성했던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적잖은 불교문학자가 소설과 회곡 등의 장르에서 두드러지게 활약했다는 점에서 일컬어지는 표현이다.

6) 淨土眞宗의 신자로서 본명은 靜子이고 남편의 이름은 宗藤襄治郎이다.

7) 이 『歎異抄』는 일본의 佛典이기도 하지만, 親鸞의 위력이 일반 대중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문학의 고전으로 널리 읽히고 있다. 이 책에는 주로 인간의 고뇌와 비애를 뛰어넘기 위해 가장 일상적으로 수행하기 쉬운 '염불의 길'이 제시되어 있다.

8) 논자는 이 一燈園을 종교성이 짙은 단체로 본다. 그것은 다음의 설명으로 그 이유가 충분히 가능해진다. 서울에서 1986년에 개최된 제3차 세계종교인대회(WCRP)에 참가한 적이 있는 논자는, 종교인의 자격으로 참가한 一燈園 관계자 - 창시자 天香의 아들인 니시다 다케시(西田武) - 와 조우하여 수회에 걸쳐 담론한 적이 있고, 1990 이후 京都에서의 유학생생활을 통해서도 一燈園을 2차례 방문하여 그곳 관계자들과 대담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논자는 一燈園 자체가 하나의 종교로 표방되어 있었다는 점을 크게 느꼈다. 이 점은 어디까지나 논자의 확실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관적인 것이라는 판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 나머지, 논자는 보다 객관적으로 一燈園이 종교적 단체임을 논증하기 위해 今成元昭와 藤吉慈海·安丸良夫·柏原祐泉 등의 글을 다음에 소개하고자 한다.

今成는 倉田가 목숨을 걸고 종교를 구한 사람이라는 말, 즉, “倉田は、<中略> 聖書研究會に通ったり、西田天香の一燈園に入ったりして懸命に宗教を求めた人であって”<今成元昭(昭52) 『淨土教周邊』 - 倉田百三『出家とその弟子』, 田村円澄·田村芳朗 編 『日本仏教のこころ』, 有斐閣, p.273>라 말하고, 藤吉는 天香가 한 때 '죽음'을 무릅쓴 적이 있었기 때문에, 一燈園 생활 전체가 '宗敎的'이었다는 말, 즉, “今日の宗教家は口では立派なことを言っているが、實際生活は宗敎的になっていない。しかるに、天香さんは一度死に切っているから、生活全体が宗敎的である。”<藤吉慈海(昭54) 『西田天香の思い出』, 『禪と念仏の間』, 春秋社, p.30>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安丸良夫는 『日本の近代化と民衆思想』를 통해 一燈園에 관하여 '극도의 精神主義자들에게 있어서 安息所'라고 설명하면서<安丸良夫(1999), 『日本の近代化と民衆思想』, 平凡社, p.87>, 一燈園이 종교단체임을 시사하고 있고, 柏原祐泉는 『日本仏敎史 近代』를 통해, 강한 무소유관을 철저히 하여 종교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생활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종교적 분위기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신앙 내용은 개인의 선택에 완전히 맡긴다고 밝히고 있다.<柏原祐泉(2001) 『日本仏敎史 近代』, 吉川弘文館, pp.130-132>

土眞宗의 敎서 중 하나인 『歎異抄』에는 불교사상이 적잖게 실려 있는 만큼, 이를 기초하여 역사적 사실을 작품화 한 『出家とその弟子』에 불교사상의 일면인 ‘타력신앙’ 의식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는 사실에 논자는 주목하고자 한다.

『出家とその弟子』 전반부에는 倉田가 청년기에 신앙한 기독교적인 사상체계가 「序曲」을 중심으로 나타나 있는 데 반하여, ‘타력신앙’ 의식을 중심으로 불교사상은 작품 전반에 걸쳐 실려 있다. 그것은 『出家とその弟子』가 불교적 작품이기 때문에 당연시되겠지만, 타력신앙의 가장 큰 핵심인 ‘염불(念佛)’ 행의와 ‘기도(祈禱)’ 의식이 정토계 불교에 있어서 특징적인 면이라는 점에서 이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는 倉田가 작품 『出家とその弟子』를 淨土眞宗의 중심적 敎서인 『歎異抄』의 유명한 ‘악인정기(惡人正機)<sup>10)</sup> 설 등을 기초로 하여 극락왕생관(極樂往生觀)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出家とその弟子』에는 용서·중재·고백·기도·사랑 등의 기독교사상 이상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 ‘염불’과 ‘기도’라는 불교사상 또한 작품의 전편을 통해 거듭 나타나 있음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보여진다.

논자는 최근 大正期の 倉田문학에 관한 연구를 거듭하던 중 본고와 같은 제목의 「I」(基督敎적인 ‘罪惡感’을 중심으로)<sup>11)</sup>과 「II」(基督敎적인 ‘사랑’ 意識을 중심으로)<sup>12)</sup>를 각각 발표하여 연구물로 집필한 적이 있다. 이 두 연구 성과는 倉田의 역사적 사실에 바탕한 희곡 『出家とその弟子』를 통하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논자는 이 작품이 근대일본문학 중에서 대표적인 불교문학작품이라는 점을 재인식하면서, 본고에서는 『出家とその弟子』에 나타나 있는 불교의 ‘염불’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타력신앙 의식>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9) 일반적으로 불교는 신행 위주의 자력 위주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타력신앙 위주의 종교라고 일컬어지나, 정토계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몇몇 불교종파는 ‘염불’과 ‘기도’에 의해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염원을 이룰 수 있다는 타력 위주의 신앙성을 강조하고 있다.

10) 이는 親鸞의 언행이 기술된 『歎異抄』 제3장의 「善人なをもちて往生をとぐ、いはんや惡人をやく선인조차도 왕생을 하는데, 하물며 악인이야)」라는 표현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특정한 계층·신분·직업 등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말법 세상’이라고 여겨지고 있던 親鸞제세 당시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親鸞思想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질을 나타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廣松涉 外6人 編(1998) 『岩波 哲學·思想事典』 岩波書店 p.13 참조>

한편, 작품 『出家とその弟子』에서 처음으로 ‘惡人’에 관한 표현이 나타나는 곳은 「제1막 제2장」이지만 여기에서의 의미와 상통되는 곳은 「제1막 제2장」의 다음과 같은 대사이다.

左衛門 あなたのお話はこれまでの坊様のと異なります。あなたは自分を惡人かのようにお話しなされます。

親鸞 私は自分を惡人と信じています。そうです。私は救い難き惡人です。私の心は同じ仏子を呪いますもの。惡人でなくて何でしょうか。

<倉田百三(平11) 『出家とその弟子』, 新潮社, p.43>

11) 줄론(2003.2) 「『出家とその弟子』의 思想的 考察(I)」, 『日本文化學報(第16輯)』, 韓國日本文化學會, pp.243-259

12) 줄론(2003.8) 「『出家とその弟子』의 思想的 考察(II)」, 『日本文化學報(第18輯)』, 韓國日本文化學會, pp.107-122

## 2. 倉田百三의 宗教的 心境 변화 과정

1891년(明24) 2월 23일 6년1남의 남매 중 외아들로 히로시마(廣島)현에서 태어난 倉田는 1904년(明37) 미요시(三次)중학교를 이모 슬하에서 다녔다. 20세기 부친의 반대에도 철학을 전공하기 위해 一高에 입학했으나, 직전에 알았던 중학교 담임교사의 처제에 해당되는 고데 토요(小出トヨ)의 부모로부터 결혼시켜 원거리까지 내보낼 수 없다는 파혼 통보에 따라 그는 첫 번째 실연을 당한다. 그러나 1910년(明43) 20세기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東京第一高等學校에 철학을 전공하기 위해 입학<sup>13)</sup>한 후 그는 日本女子大學에 재학 중인 누이동생 쓰야코(艶子)의 급우인 이쓰미 히사코(逸見久子)와 연애하나, 逸見도 갑작스레 타인과 결혼하게 됨에 따라 크게 고뇌하게 된다. 이어 그는 그 해 9월에는 치루에 걸려 히로시마(廣島)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이듬해 倉田는 24세이던 1월에 간호사인 간다 하루코(神田晴子)의 간호를 받게 되면서 함께 기독교 교회<sup>14)</sup>에 나가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함으로써 그녀와 가까운 관계<sup>15)</sup>가 된다. 이어 여동생 艶子와 벳부(別府)에 요양 차 다녀온 그는 고향 쇼바라(庄原)로 돌아와 교회에서 설교까지 하게 된다. 이 무렵 倉田는 「戀を失うた者の歩む道(사랑을 잃은 자의 걸어갈 길)」를 一高 교우회지에 발표하고 이듬해에는 「隣人としての愛(이웃으로서의 사랑)」와 「過失—お絹さんへの手紙(과실—오키누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표한다. 그러나 12월에 교토(京都) 인근에 있던 一燈園을 찾아가 창시자인 西田天香(1872-1968)를 만난다.

이 같은 일련의 실연 등에 따른 고통으로 인하여 倉田는 폐결핵·관절염·불면증 등에 걸리고 만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철학과 문학은 물론이고 종교서적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다. 그 결과 그는, 이와노 호메이(岩野泡鳴)로부터는 과장된 점에 엄숙함과 증오감을 느끼고 나가이 가후(永井荷風)의 탐미주의에는 반감을 가지게 된다. 한편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높고 지내고자 함에는 한숨을 쉬고 구니키다 듯보(國木田獨歩)나 시마자키 토손(島崎藤村)에게는 친밀감을 지니며 武者小路實篤 등의 白樺派의 문인들과는 그다지 인연이 깊지 않으나 후에 합류하는 정도로 당시의 문인들에 대한 호오감(好惡感)을 지니고 있었다.

- 13) 이를 계기로 倉田는 芥川龍之介와 一高의 동급생이 되나, 양자 사이에는 특별한 교분은 없었다고 보여진다.
- 14) 이 때 倉田는 자신이 앓고 있던 결핵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일념으로 庄原町에 있는 조그만 アライアン스교회라는 성서연구회에 다녔다.
- 15) 倉田는 神田晴子를 통해서 '이웃 사랑(隣人愛)'과 '성욕(性慾)'의 기로에 서게 된다. 결핵 환자의 입장에서 倉田는 여성에 대하여 매우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무렵 倉田는 세 번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후 점차 종교적 의식을 갖게 해 나간다. 그 결과 천직이라 여겨온 문학을 도외시키고 새로운 종교적 요양기관이라 생각되는 天香의 一燈園에 들어가나, 그곳에서 몸이 다 소나마 회복되자 晴子와 동거생활을 하게 된다. 그 정도여서 그런지 倉田는 '연애의 천재'라는 닉네임을 곧잘 듣게 될 정도였다.

이 무렵 倉田는 자신의 철학적인 안목에 고뇌하던 중 『善の研究(선의 연구)』의 저자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 1870-1945)를 만나 담론한다. 문과로 복귀하고자 상경하던 중 그는 京都에 있던 幾多郎를 방문하여 인생과 철학에 대해 지문을 구하고, 인생에 대해 계속 회의하면서 지내다 天香를 만나면서부터 기독교와 같은 ‘타력신앙’에 입각한 종교로서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불교 쪽에 관심을 갖게 된다.

倉田가 어린 시절 접했던 불교와 대조적인 기독교를 청년기에 선택하게 된 데에는 가까운 곳에 기독교 교회가 있어 가능하기도 했지만, 기독교야말로 당시의 倉田에게는 심신간의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종교라 느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모가 신앙하던 淨土眞宗 역시 타력신앙의 성격이 짙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倉田는 一燈園에서 요양과 봉사체험을 하면서부터는 불교적 인생관을 지향한다. 그러나 그가 이상에서 밝힌 3개의 종교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불교를 통해 만년의 인생관을 펴게 된 데에는 淨土眞宗 가문의 출신이며 一燈園의 창시자인 天香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sup>16)</sup> 그러나 그가 남긴 여타의 문학작품을 통해 자신이 기독교인인가 一燈園의 일원인가 또는 불교인인가가 그 자신의 자서전 성격의 평론인 『愛と認識との出發』에도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만년에 불교적 인생관으로 살았음은 어디까지나 그가 남긴 각종 작품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倉田의 종교관은 한편으로는 철두철미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종교적 체험이 다양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가 믿었던 종교적 성격 모두가 ‘타력신앙’을 토대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종교관은 일관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倉田는 한 때나마 출가<sup>17)</sup>까지 해보려 결심한 적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出家とその弟子』라는 작품을 집필할 수 있었고, ‘염불’로 극락세계를 지향하고 ‘기도’로 염원하고자 불교적 신행 또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그의 작품 중 상당수가 불교적인 소재 및 제재로 될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 셈이다.

여기에서 논지는 ‘종교’라는 어휘에 관하여 간단하게나마 재인식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종교’라 하면, 초인간적·초자연적인 힘에 대해 인간이 경의·존송·신앙하는 일의 총체적 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종(宗)의 교(教)’, 즉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로서 주로 ‘종문(宗門)의 가르침’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영어 ‘religion’의 역어로 인간생활의 궁극적인 의미를 명확히 하고 또 인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행위와 체계를 총칭하는 문화현상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sup>18)</sup> 이 같은 문화현

16) 이로 인하여 倉田는 天香의 무이주의(無我主義)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그는 사신주의(捨身主義)를 제창, 종교적 인도주의의 입장에 서게 되었고, 결국에 가서는 사랑과 도덕을 결부시킨 작품을 세운 사상적 종교문학으로서 널리 퍼갔다.<長谷川泉(昭30) 『近代日本文學思潮史』, 至文堂 p.74>

17) 倉田百三(1994) 『倉田百三選集(第1卷)』, 日本圖書センター, p.239

18) 日本國語大辭典 第二版 編輯委員會 編(2001) 『日本國語大辭典(第二版, 第6卷)』, 小學館, p.1217

상 속에서 절대적 신(神)에 간절히 소망하는 기독교가 있고 고행을 자행하면서 자력으로 성불제중(成佛濟衆)을 목표로 삼는 불교와 같은 종교도 있는 반면, 다수의 종교도 그렇듯 一燈園처럼 ‘사후세계’를 더욱 가치 있게 여기면서 ‘죽음’의 문제를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 3. 『出家とその弟子』에 나타난 佛敎的 ‘他力信仰’ 의식

#### 3.1 『歎異抄』를 통한 倉田의 ‘타력신앙’ 인식

일찍이 데이비드 제스퍼(David Jasper)는 “문학과 종교는 각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둘 다 각기 다른 쪽을 비판하면서 또 필요로 한다”<sup>19)</sup>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문학이 종교의 지나치게 호교적(護敎的)인 면으로 생기는 독단적의 위험성을 구해주고 종교는 윤리적인 기준으로 문학의 악(惡)이나 파괴적 목적에 봉사하게 되는 위험성을 구해주는 것이라 보면서 설득력 있게 논리를 펴고 있는 바, 논자는 이에 크게 동감하는 바이다. 이는 문학과 종교 사이에는 상보적 관계가 충분히 성립되어지고 있다는 인식 아래서의 일견인 셈이다.

청소년기에 문학과 철학·종교 등에 관심을 가진 倉田는 이모로부터 淨土眞宗과 밀접한 관련자인 『歎異抄』를 빌려<sup>20)</sup> 고향 쇼바라(庄原)로 돌아가 시골집에서 홀로 지낸 바, 倉田의 마음에는 이모의 영향으로 淨土眞宗에 호교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 무렵 1월부터 그는 幾多郎의 『善の研究』 등에 심취, 이들을 탐독하면서 일본의 철학계에 관해서도 고뇌하기 시작했다. 倉田는 26세시이던 1916년(大5) 11월부터 『出家とその弟子』의 집필을 완료하고, 白樺派의 동인잡지인 『生命の川(생명의 강)』<sup>21)</sup>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이런 종교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소위 자신의 처녀작이라 할 『出家とその弟子』를 출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倉田의 불교문학사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초석은 전술한 바 있는 親鸞思想이다. 이 사상의 핵심은 親鸞이 직접 저술한 『敎行信證(교행신증)』<sup>22)</sup>에도 나타나 있지만, 倉田가

19) David Jasper 著, 李俊鶴 譯(1999) 『문학과 종교연구 서설』 동인, p.9 참조

20) 倉田가 『歎異抄』를 입수하게 된 것은, 1914년(大3) 1월 須磨에서 지내다 고향인 庄原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요양하며 지내던 중, 三次에 살고 있으며 이미 淨土眞宗의 신자였던 이모로부터 빌리게 된 것이다.

21) 1916년(大5) 9월 千家元磨·犬養健·高橋元吉 등의 동인과 함께 창간된 문예잡지이다

22) 親鸞의 대표적 저작으로서, 淨土眞宗의 근본 성전이다. <敎·行·信·証·眞仏士·化身土>의 6권으로 되어 있다. 『敎行信証』이라 함은 약칭이고, 본래 서명은 『顯淨土眞實敎行證文類』라고 한다. 이 서명의 의미는 정도의 진실한 敎·行·證을 명확히 한 문장을 나타내어 집대성한 문류라는 것이다. 이를 통하

이해하여 『出家とその弟子』라는 작품을 집필하는데 그 바탕이 된 『歎異抄』는 과연 어떤 교리체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이는 『歎異抄』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서 倉田가 이를 희곡화하여 『出家とその弟子』를 집필했는지 알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논자는 일찍이 이 『出家とその弟子』가 『歎異抄』의 가르침을 「서곡」을 제외하고도 6막 13장으로 희곡화된 작품이라 하면서 그 줄거리<sup>23)</sup>를 소개한 적이 있다. 『歎異抄』는 저자<sup>24)</sup> 유이엔(唯円)이 親鸞 입멸 이후의 세월과 함께 그의 유훈(遺訓)과 다른 이의(異義)가 나타남을 개탄·비판하여 기록한 것이어서, 한 마디로 親鸞의 언행록이라 할 수 있다. 『歎異抄』에서 親鸞은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죄업이 심중하므로 마음 깊이 아미타불을 믿으며 ‘염불’ 행의를 해야 된다는 등의 타력신앙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唯円은 기술했다. 그러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선 그 「서(序)」에 관한 내용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倉田가 처음으로 이 『歎異抄』를 입수하여 완전히 통독했는가에 대한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그 내용을 거의 파악했다는 점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 그것은 『歎異抄』의 가르침을 『出家とその弟子』를 통해 희곡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倉田가 1934년(昭9) 9월 『一枚起請文・歎異抄 — 法然と親鸞の思想 이치마이키쇼분・탄니쇼 — 호넨과 신란의 사상』<sup>25)</sup>라는 책까지 발간했기 때문이다. 이는 훗날 『法然と親鸞の思想(호넨과 신란의 사상)』<sup>26)</sup>라는 두 권의 책으로 수정되어 발간된 바, 그 중에서 동 하권<sup>27)</sup>을 통해

여 親鸞과 천대종(天台宗)의 ‘本覺思想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京都의 東本願寺에 親鸞의 자필본이 현존하고 있다.<親鸞 著, 金子大榮 校訂(1997) 『敎行信証』, 岩波書店 pp.5-6와 石田瑞廣(1996) 『敎行信証入門』, 講談社 pp.42-49 참조>

23) 拙論(2001.3) 「日本近代文學과 佛敎」, 『日本語文學(第10輯)』, 韓國日本語文學會 pp.185-186

24) 『歎異抄』의 저자에 대해서는 적잖은 설이 있었다. 親鸞의 孫子(善鸞의 아들)인 如信이나 親鸞의 증손이며 本願寺 삼세인 覺如라는 설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親鸞의 제자이며 倉田의 『出家とその弟子』에 등장하고 있는 唯円이라는 설이 정설이라는 입장이다. 이 점은 親鸞과 그의 아들인 善鸞의 관계가 좋지 않음에 따라 야기된 ‘善鸞事件’(親鸞의 장자 慈信房 善鸞이 關東의 門弟 사이에 일으킨 異義事件에 의해 親鸞이 善鸞과 의절한 일<千輪慧(1984) 『歎異抄と親鸞』, 勁草書房 pp.25-26 참조)을 비롯 唯円이 親鸞과의 만남을 통해 체험한 일들이 『歎異抄』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고 하겠다.<伊藤博之(昭58.12) 『歎異抄』, 『國文學解釋と鑑賞』, 至文堂 pp.110-111 참조>

25) 이 책은 같은 해 9월 15일 大東出版社에서 <仏敎聖典を語る叢書 第3卷>으로 발행되었다. 논자가 이 책을 소장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바, 두 말할 것도 없이 그 저자는 倉田百三였고 그 발행인은 岩野眞雄이었으며 인쇄소는 兩友堂이었다.

26) <全2冊>으로 발간된 이 책은 발간과 더불어 상당히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책 중에서 논자가 소장하고 있는 <上卷>은 1977년 6월 10일 초판 발행된 이래 판을 거듭, 1990년 4월 25일 第3刷로 발간되어 있고 <下卷>은 1977년 7월 10일 초판으로 나온 이래 1991년 10월 5일 第14刷로 발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책은 法然과 親鸞의 생애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문학서와는 별개의 것이나, 倉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책으로 보여진다.<倉田百三(1990) 『法然と親鸞の信仰(上・下)』, 講談社 전체 내용 참조>

27) 稻垣友美는 이 책의 「解説」에서, 倉田와 동년배의 사람으로서 倉田百三와 『歎異抄』·『出家とその弟子』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法然と親鸞の信仰』은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서명은 아니다. 나에게 있어

주로 『歎異抄』를 중점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그러면, 『歎異抄』의 진수(眞髓)가 실려 있는 그 「序」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마음 속의 어리석은 생각을 가만히 굴리어, 대충 고금을 헤아려 보니, 선사(先師)인 親鸞 성인이 직접 구전으로 가르쳐 준 진실신심과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信心이 똑 같지 않음에 따라 이를 탄식하면서, 후학들이 신심을 이어감에 있어서 의심하고 미혹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바이다. 다행으로 인연 있는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무슨 수로 염불이라는 이행(易行)의 유일한 길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자기 견해를 내세우는 깨달은 듯한 말로 阿彌陀佛의 본원을 의지하는 타력의 중지를 혼란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이미 열반한 親鸞 성인의 말씀의 취지 중에서, 지금 제 귀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적어 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오직 신심을 같이하는 염불행자들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기 위함이다.<sup>28)</sup>

논자는 唯円이 이 책을 집필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위에서 인용한 「序」의 내용이 실려 있는 동 하권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倉田는 이 책의 「第3章 歎異抄講釋(제3장 탄니쇼 강평)」의 맨 앞에 있는 「その序について(그 서에 대하여)」라는 항목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도 위의 인용문을

탄니쇼에는 처음에 한문으로 된 짧은 序가 붙어 있다. 이것은 유이엔이 탄니쇼를 쓴 동기와 목적을 미리 알린 것이다. 문장 가운데 「선사 親鸞 성인이 직접 구전으로 가르쳐 준 진실신심과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신심이 똑 같지 않음에 따라 이를 탄식하면서」라는 것이 다름 아닌 『歎異抄』라는 제명에 해당되는 「歎異의 의미이다.<sup>29)</sup>

라고 보다 쉽게 기술, 『出家とその弟子』에서는 親鸞의 제자로서 등장하는 인물인 唯円이 『歎異抄』를 저술한 배경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 서는 倉田百三을 처음으로 만나게 해 준 책이지만, <중략> 드디어 나는 法然이나 親鸞의 가르침에 매료 당하게 되어, 倉田百三에 대한 매력에도 홀리고 말았다. 곧바로 『出家とその弟子』를 읽게 되었는데 그때 倉田百三의 부르짖음이 거기에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는 기억이 지금도 있다. 작품의 순서로 보면 15년이나 나중에 나온 작품을 먼저 읽고 나서, 이 회곡을 읽어 감동이 반감되었을지도 모르지만, 『歎異抄』를 다소나마 이해하게 되었음은 『出家とその弟子』를 읽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보면 倉田가 『歎異抄』를 읽고서 그 가르침을 『出家とその弟子』를 통해 회곡화한 의의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倉田百三(1991), 『法然と親鸞の信仰(下)』, 講談社, pp.198-199 참조)
- 28) 竊廻愚案、粗勘古今、歎異先師口傳之眞信、思有後學相續之疑惑、行不依有緣知識者、爭得入易行一門哉。全以自見覺悟、莫亂他力之宗旨。仍故親鸞聖人御物語趣、所留耳底、聊注之。偏爲散同行者之不審也云々。<名畑應順ら 校注(1978), 『親鸞集 日蓮集(日本古典文學大系 82)』, 岩波書店 p.192>
- 29) 歎異抄には初めに漢文の短い序がついている。これは唯円が歎異抄を書く動機、目的をことうたったものである。文中の「先師口伝の眞信に異なることを歎き」というのがつまり「歎異抄」という題名の歎異の意味である。<前掲書, 『法然と親鸞の信仰(下)』, p.77>



그래서인지 倉田는 『歎異抄』의 「序」를 통해, 무엇보다도 親鸞의 인물 됴됨이를 보고 선 지식(善知識)<sup>30)</sup>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그것은 그만큼 倉田의 가슴에 親鸞에 대한 신심이 크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倉田는 난해한 교리를 넘어선 소위 ‘이행(易行)’이라는 방편에 해당하는 ‘염불’에 의한 타력신앙 즉 <‘염불’로 극락왕생이 가능하다>는 신심에 크게 공감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한편으로는 일찍이 기독교신앙을 하면서 『성서』를 탐독한 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폐결핵 등에 걸려 생사의 분수령에 놓여졌던 倉田가, “それは、あなたがたの信仰が人の知恵によらないで、神の力によるものとなるためであった。(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인간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sup>31)</sup> 라는 『성서』의 가르침과 믿음 아래 절대자의 ‘타력’에 매달리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倉田는 『出家とその弟子』 속에 왕생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 ‘염불’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倉田는 점진적으로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라는 염불 일성(一聲)에 감동하면서 ‘염불보다 뛰어난 선행(善行)은 없다는 단계를 섭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내용을 보자

“아미타불께서 세위 오신 서원의 불가사의한 힘에 의하여 구원을 받아, <정도에 왕생할 수 있다>고 믿고,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때 그 자리에서 일체중생을 섭취 불사하시어 이익을 받은 것이다. 아미타불 본원에는 노소와 선악간에 사람을 가림이 없다. 다만 信心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치성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세우신 본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음에 있어서는, 여타의 선이 필요하지 않다. 염불보다 뛰어난 선행은 없기 때문이다. 또 악을 저지른다고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 아미타불의 본원을 방해할만한 악행이 없기 때문”이라고 거듭 말씀하셨다.<sup>32)</sup>

이 인용문은 『歎異抄』 제5단의 “ただ自力をすて、いそぎ浄土のさとりをひらきなば오직 자력을 버리고 염불하여 조속히 정도에 왕생하고자 함”<sup>33)</sup>과 제6단의 “ひとへに弥陀の御もよほしにあづかりて(오로지 미타로부터 부르심을 받고)”<sup>34)</sup> 등을 통해 한층 타력신앙의 필

30) ‘邪道’가 아닌 ‘正法’을 설하여 중생을 佛道에 인도하며 해탈을 얻게 하는 고위층의 사람을 말한다

31)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第2章 第5節, <『聖書(口語譯)』, 日本聖書協會, 2000. p.257

32) 「弥陀の誓願不思議にたすけられまいらせて、往生をばとぐるなりと信じて、念佛まうさんとおもひたつころのおこるとき、すたはち、攝取不捨の利益にあづけしめたまふなり。弥陀の本願には、老小善惡の人をゑらばれず、ただ信心を要とす、とするべし。そのゆへは、罪惡深重・煩惱熾盛の衆生をたすけんがための願にてまします。しかれば、本願を信せんには、他の善も要にあらず、念佛にまさるべき善なきがゆへに。惡をもおそるべからず、弥陀の本願をさまたぐるほどの惡なきがゆへに」と云々。<前掲書『親鸞集 日蓮集』, pp.192-193>

33) 上掲書, p.196

34) 上同

요성은 물론이고 그 경지를 보다 실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타력신앙’의 양상으로 표현화되어진 불교가 곧 정토계 불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점에 대해서는 『出家とその弟子』에 나타난 용서·중재·고백·기도·사랑 등 기독교적 용어 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논자는 『歎異抄』의 사상적 기반이 타력신앙의 대표적인 기독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면서, ‘염불’ 행의와 ‘기도’ 의식에 관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 3.2 作品을 통한 ‘念佛’ 행의

일본 중세 이후 정신사(精神史)적으로 볼 때 ‘염불’에는 객관적인 어떤 특별한 힘이라는 구제의 보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인간구제의 모든 것이라는 역설이 성립되어 있다. 이는 親鸞으로부터 기요사와 만시(清澤滿之, 1863-1903)<sup>35)</sup>에 이르는 계보를 통해 인지되어지는 ‘타력신앙’의 흐름이라고 다나카 미노루(田中實)가 밝힌 논지<sup>36)</sup>를 통해 여실히 알 수 있다.

『出家とその弟子』에 깃들여 있는 倉田의 ‘염불’ 행의는 주로 「제1막」과 「제2막」을 통해 중점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것은 행각승의 입장에서 서 있던 親鸞 일행이 많은 눈이 내려 쌓인 어느 날 사에몬(左衛門)의 집에 하룻밤을 머물기 전후의 상황<sup>37)</sup> 속에서 ‘염불’이라는 표현이 거듭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음은 물론이다. 논자는 倉田의 ‘염불’ 의식에 관한 성향을 자비심·성불·고통극복·극락왕생의 발원 등으로 보는 바, 이상의 내용을 倉田는 親鸞을 비롯한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出家とその弟子』에 나타나 있는 ‘염불’ 의식의 첫 장면으로서 자비심의 발원이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는 일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에몬 (신란에게) 저는... 저는... (უნ다) 용서해 주십시오.(눈 위에 무릎을 꿇는다.)

신란, 놀란 듯이 잠깐 머뭇거리다. 그리고 나서 말없이 사에몬의 어깨를 쓰다듬는다.

오카네 본심은 좋은 사람이거든요. 본심은 좋은 사람이에요.

35) 明治時代 浄土眞宗 大谷派의 승려로서 의학을 전공했으나, 京都大谷派本山에서 득도하고부터 明治 29년 에 本山の 寺務革新을 위한 잡지 『敎界時言』을 발행했는데, 이런 일 등으로 인하여 중단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明治 33년에 분향인 森川町에 ‘浩浩洞’를 개설, 이듬해에 曉鳥敏 佐々木月樵 多田鼎와 잡지 『精神界』를 간행하여 “精神主義”를 제창했고 絶對他力信仰을 고취시켰다.<吉田久-(48), 『清澤滿之』 吉川弘文館 pp.202-265 참조>

36) 田中實(1900), 『『出家とその弟子』と念佛思想』, 前掲書 p.51 참조

37) 芥川龍之介는 처녀작 『羅生門』(大4. 11)을 『帝國文學』에 발표한다. 이 책에 나오는 야밤에 비를 흠뻑 맞고 있는 ‘하인(下人)’의 상황설정이 倉田의 『出家とその弟子』에서는 ‘左衛門’이 야밤에 눈이 쌓여 있는 상황에 등장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점에 관하여 논자는 동시대인이자 一高 동급생끼리의 작품에서 우연하게도 비슷한 상황설정이라는 점을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면서도, 倉田의 『出家とその弟子』(大5.6)가 『羅生門』보다 늦게 집필된 점을 미루어 볼 때 倉田가 芥川の 작품을 모방한 게 아닌가 하고 추정해 본다.

지엔 (눈물짓는다. 나지막한 소리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료칸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38)

「제1막 제1장」에서, 親鸞을 비롯한 승려 세 사람은 行각승으로서 左衛門의 집에 인연을 맺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룻밤 묵어 갈 것을 간절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左衛門은 오히려 승려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親鸞을 때밀고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집밖으로 쫓아낸 적이 있다. 할 수 없이 문밖에서 돌을 베개삼아 잠을 청하고 있는 親鸞 일행에게 사죄하지 않을 수 없다며 左衛門과 아내 오카네(お兼)가 다시 다가가 의연하기만 한 親鸞에게 용서를 빌며 집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한다. 이 장면에서 親鸞은 참으로 보통 승려와는 차원이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左衛門의 지팡이에 얻어맞은 적이 있는 親鸞이 위엄을 보이면서도 お兼에게 건넨 “괜찮습니다. 탁발하러 다니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sup>39)</sup>라는 말과 태도에 左衛門이 송구함을 넘어서 감동하기까지에는 親鸞의 자비행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그 때 左衛門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참회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용서를 비는 장면이 위 인용문만으로도 알 수 있다 하겠다.

그렇지만 倉田는 親鸞이 비록 몸담고 있는 종단이 淨土眞宗였다 할지라도 ‘자력종교’로서의 목적이라 할 성불의 발원 또한 크게 인식하고 있다. 다음 내용을 보자.

사에몬 그러면 선해지려는 노력도 무리라는 말입니까?

신란 작 해지려 하는 염원이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면 무리는 아닙니다.(중략) 그러나 저는 선해지려는 염원은 끝까지 잃지 않겠습니다. 그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상의 정해진 운명입니다. 저는 그 염원이 염불에 의해서 성불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염원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sup>40)</sup>

앞에서 倉田는 親鸞마저도 ‘악인’이라고 폄하함으로써 淨土眞宗 특유의 악인정기설을

38) 左衛門 (親鸞に) 私は… 私は… (泣く) 許して下さい。(雪の上に跪く)  
親鸞、感動する。少しおどおどする。それから黙って左衛門の肩をさする。

お兼 根はいい人なのですからね。根はいい人なのですからね。

慈円 (涙ぐむ。小聲で) 南無阿彌陀仏。々々々々々々。

良寛 南無阿彌陀仏。々々々々々々。

<上掲書, 『出家とその弟子』, p.41>

39) “大事ありません。行脚すれば、この様な事は度々あります”

<上掲書 p.40>

40) 左衛門 では善くなろうと努めるのも無理ですか。

親鸞 善くなろうとする願いが心に湧いて来るなら無理ではありません。<中略> しかし私は善くなろうとする願いは何處までも失いません。その願いが叶わぬのは地上のさだめです。私はその願いが念仏に依って成仏する時に、満足するものと信じています。私は死ぬるまでこの願いを持ち続けるつもりです。

<上掲書 p.50>

드러냈다고 논자는 전술한바 있다. 倉田는 이 같은 ‘악인’이 착해지려는 염원을 갖게 됨은 결국 범 불교계가 지향하는 ‘상구보리(上救菩提)’한 이후에 ‘하화중생(下化衆生)’하고자 하는 뜻 또한 크게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親鸞이 염불을 함으로써 성불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倉田가 인식하는 대목이다. 그것도 “私は死ぬるまでこの願いを持ち続けるつもりです。”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말이다.

불교의 중심교리에는 소위 ‘고집멸도(苦集滅道)’라는 ‘사제(四諦)’가 있고, ‘고(苦)’에는 ‘사고(四苦)’가 있어 그 중의 하나가 ‘애별이고(愛別離苦)인 바, 고통 극복의 발원을 고찰하기 위해 다음 인용문을 보기로 하자.

사에몬 하지만 스님과 이대로 헤어지는 것은 싫습니다. 언제 또 뵈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오카네 그렇다면 적어도 45일만이라도 묵었다 가십시오.

신란 사람이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정해진 바이지요. 혹시 제가 생각나시면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저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sup>41)</sup>

左衛門조차 親鸞을 ‘살아있는 부처’로 보게 되면서 이전과는 정반대의 자세로 심정을 토로하자, 親鸞은 “會うものはどうせ別れなくてはならないのです。それがこの世のさだめです。戀しく思召さば南無阿彌陀仏を唱えて下さい。私はその中に住んでいます。”라고까지 말하게 된다. 따라서 이 인용문은 親鸞은 고집멸도의 현상이 나타나면 염불로 마음을 승화시켜 갔다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논자는 倉田가 親鸞의 고통극복의 발원의 방법에는 염불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倉田는 나아가 親鸞思想의 핵심적 요소라 할 ‘왕생관’에 관해서도 빠뜨리지 않고 기술하고 있다. 이른바 극락왕생의 발원에 관해서도 염불을 해야 한다고 그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동행5 극락왕생하고 싶어서요

신란 극락왕생은 우리나라에서 설법을 들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염불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행6 그렇다고 해도 웬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말입니다

신란 안심하십시오. 염불만으로 충분합니다

동행1 스님의 안심에 관하여 더 듣고 싶습니다만

41) 左衛門 でもあなたとこのままお別れするのは辛う御座います。いつまた逢われるか解りません。

お兼 せめて四五日なりとお泊り遊ばして。

親鸞 會うものはどうせ別れなくてはならないのです。それがこの世のさだめです。戀しく思召さば南無阿彌陀仏を唱えて下さい。私はその中に住んでいます。

신란    나의 안심도 오직 그 염불뿐입니다.  
 동행2   하지만 너무 단순합니다  
 신란    그 단순함이 우리 종파의 진면목입니다.<sup>42)</sup>

본래부터 불교는 소위 연기법(緣起法)에 의해 생사관(生死觀)을 떠나간다. 인생의 종교적인 면이 ‘죽음’에 있다는 불교의 교리체계를 보면, 그 사후(死後)의 세계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일로 보인다. 그러므로 倉田는 위의 인용문을 통해 ‘금생을 통한 삶의 안심’에 관한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親鸞思想의 극치를 염불로 묘사해 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인용문은 ‘극락왕생에 관한 倉田의 관점이 단순히 사후의 왕생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倉田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歎異抄』에 나타나 있는 ‘염불’에 관하여 자비심·성불·고통극복·극락왕생의 발원 등으로 다양하게 의미부여하고 있다. 이는 倉田가 親鸞思想은 물론이고 『歎異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섭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겠다.

### 3.3 作品을 통한 ‘祈禱’ 의식

『出家とその弟子』에 나타나 있는 ‘기도’ 의식은 주로 「제5막」을 통해 질게 묘사되어 있다. 그것은 작가가 오랜 기간 육체적 질환을 앓고 난 후 『出家とその弟子』가 집필된 것이기 때문인지, 이 ‘기도’라는 신행은 비교적 작품의 뒤쪽에 집중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논자는 倉田가 종교적 구도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은 심신간의 극심한 아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처음에 기독교를 통해 어떤 구도 행위를 찾으려 하기도 했으나, 자신이 진정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歎異抄』를 탐독하고 『出家とその弟子』를 집필하면서 親鸞을 크게 흠모하게 된 나머지 마침내 소위 ‘종교적 전환’이라 할 개종(改宗)을 시도한 셈이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작품 『出家とその弟子』가 다양한 사상적 제재 아래 작품화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倉田는 자신의 투병생활을 통해 실행했던 기도의 중요성을 작품에 적잖게 묘사해 나간 셈

42) 同行五    極樂參りが致したいので。  
 親鸞    極樂參りはお國で聽聞なされてよく御承知の通りの念仏で確かに出来るのです。  
 同行六    でも何だか不安な氣がしまして。  
 親鸞    安心なさい。それだけで充分です。  
 同行一    あなたの御安心が承わりたいので。  
 親鸞    私の安心もただその念仏だけです。  
 同行二    でもあまり曲がなさ過ぎます。  
 親鸞    その單純なのが當流の面目です。  
 <上掲書 pp.78-79>

이다. 그러면 倉田의 ‘기도’ 의식을 「제5막 제2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유이엔 (등장. 신란을 보자 무릎을 꿇고 운다)

신란 (곁으로 다가가 등을 두드려 준다) 유이엔, 울지 말게, 나는 대강 헤아리고 있어. 심하게 꾸짖지 않겠네. 자네가 자책하고 있는 줄도 내가 아니까 말이라네.

유이엔 저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곧잘 스님께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큰 잘못을 어찌하오리까? 어떤 벌이라도 각오하고 있겠습니다. 벌받아 마땅합니다.

신란 나는 자네를 제재할 생각이 없네. 자네를 위해, 자네의 벌을 위해 사해주시기를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네.

유이엔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매를 들어 주십시오.<sup>43)</sup>

기도의 중요성이 실려 있는 이상의 인용문 직전에서 唯円의 외도(外道)를 본 승려들은 그를 종단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를 듣게 된 親鸞은 비록 唯円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용서’만이 제일의 방도라고 강조한다.<sup>44)</sup> 이어 親鸞은, 唯円과 연애에 빠진 유녀가 에데의 불행한 운명을 가엽게 여기면서, 이전에 法然이 창녀에게 불법을 설함으로써 불연(佛緣)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었던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자 승려들에게 들려준다.<sup>45)</sup>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그것은 실로 倉田의 일본불교 전반에 관한 지식이 남달리 커 그 같은 표현을 구사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승려들이 唯円의 연애에 관한 소식을 듣고 소란을 피우자, 唯円은 곧바로 親鸞을 찾아 간다. 사제간의 대화 중에서 스승 親鸞은 위로와 함께 자비의 마음으로 제자에게 응해주고, 제자는 자신의 과오를 참회·반성한 나머지 스승의 당부를 듣고 기도하고 있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은 참으로 종교인으로서 바람직스럽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여기에는 親鸞의 대자대비(大慈大悲)라는 불교적 진수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이어지는 ‘기도’ 의식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유이엔 도와주십시오.

신란 나는 자네를 위해 기도하겠네. 자네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길 바란다고 이

43) 唯円 (登場。親鸞を見ると、ひざまずいて泣く。)

親鸞 (側に寄り背をたたく) 唯円、泣くな。私は大い察している。きつく叱りはしない。お前が自分を責めているのを知っているから…

唯円 私はかくしていました。度々お師匠様に嘘を申しました。私はどうしましょう。どうでもして下さい。どのような罰でも覚悟しています。それに相当しています。

親鸞 私はお前を裁く気はない。お前のために、お前の罰のために、とりなしの祈りを仏様にささげている。

唯円 私を責めて下さい。鞭打って下さい。

<上掲書, pp.179-180>

44) 上掲書, pp.175-177

45) 上掲書, pp.178-179

상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일이라네. 자네도 그저 기도하게나 인연이 있으면 두 사람을 맺어달라고 말일세. 결코 맹세해서는 안 되네.46)

앞에서 唯円은 親鸞(善鸞)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부친인 親鸞에게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빌 것임을 親鸞에게 전한 적이 있다. 그러자 親鸞은 그런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설득한다. 그리고 난 후, 親鸞은 부처의 허락이 없으면 꽃잎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이라 비유하면서, 승려인 唯円의 방탕한 생활을 호되게 꾸짖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인용문에서는, 唯円이 행하고 있는 사랑의 행각마저도 서슴지 않고 스승인 親鸞에게 고백하고 난 후, 벌벌 떨면서 자신의 사랑 행각을 하소연하는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다. 그래도 親鸞은 사랑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예로부터 그렇게 맹세해 온 것뿐이라며, 마치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달관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면서 親鸞은 사랑에 빠진 唯円의 간청을 듣고, 자신이 할 일이란 상대인 唯円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며 唯円에게도 서둘러 기도하라고 강조한다. 여기에서 親鸞은 ‘기도’라는 신행 이상의 해결책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일이라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 염원과 운명을 이어주는 ‘기도’ 의식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유이엔 인간의 염원과 운명과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 폭군과 희생자 사이처럼 잔혹한 관계인가요? ‘이렇게 되고 싶다’는 희망을 ‘이렇게 되어 있다’는 운명이 유린해 버리는 것인가요. 아무리 순수하고 인간다운 염원일 지라도.

신란 거기에 기도가 있어. 염원과 정해진 운명을 내면적으로 잇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네. 기도는 운명을 일깨우는 것이지. 운명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돼. 법장비구(法藏比丘)의 세상을 뛰어넘는 기도가 지옥행으로 결정된 인간의 운명을 극락행으로 그 운명을 바꾸어놓지 않았는가? 「부처님, 저희 두 사람이 맺어지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부처님 귀에 들어가 마음을 움직이면 자네들의 운명이 되는 것이야. 그것을 기도가 감응하였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기도의 미묘한 영험이 들어 있는 것이지.47)

46) 唯円 たすけて下さい。

親鸞 私はお前のために祈る。お前の戀のまどかなれかしと。これ以上のこのは人間の領分を越えるのだ。お前もただ祈れ。縁あらば二人を結び綴えとな。決して誓ってはならない。

<上掲書 pp.181-182>

47) 唯円 人間のねがいと運命とは互ひに見知らぬ人のように無關係なのでしょうか。いや。それは多くの場合寧ろ暴君と犠牲者とのような残酷な關係なのでしょうか。「かくありたし」との希望を、「かく定められている」との運命が蹂躪してしまうのでしょうか。どのやうな純な、人間らしい、願いでも。

親鸞 其處に祈りがある。願いとさだめとを内面的に繋ぐものは祈りだよ。祈りは運命を呼びますのだ。運命を創り出すと云ってもいい。法藏比丘の超世の祈りは地獄に審判されていた人間の運命を、極樂に決定

기도라는 어휘가 이 인용문에는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親鸞이 기도에 관하여 권유해 주는 점에 힘입어 제자인 唯円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기도’ 의식은, 작가 倉田가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해 나갔던 투병생활을 통해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저 없이 표현했다고 해도 좋다고 본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에는 작가로서 倉田가 지니고 있던 타력신앙적 요소가 아주 짙게 나타나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같은 마음가짐을 唯円의 대사를 통해 묘사하려는 리얼한 倉田의 착상은, 마치 스스로의 내면세계를 들춰내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 4. 마치는 글

親鸞의 제자인 唯円에 의해 집필되었다는 『歎異抄』의 가르침을 회곡화한 倉田의 『出家とその弟子』는 淨土眞宗의 종조인 親鸞을 가장 중추적인 등장인물로 내세운 작품이라는 점에서, 논자는 작품의 발간과 함께 세인(世人)들의 관심이 커졌다고 거듭 인식하면서 이번의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이 『出家とその弟子』의 내용을 종교적인 사상으로 대별해보면, 도입부분인 서곡을 제외하면 주제나 소재 등이 매우 불교적이다. 그런데 이 불교사상 중에는 ‘타력신앙과 유관한 내용이 거듭 나타나 있는 바, 그것은 ‘염불’과 ‘기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중 ‘염불’ 행위는 주로 제1막과 제2막을 중심으로 나타나 있고 ‘기도’ 의식은 제3막에 주로 나타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대체로 ‘염불’의 주된 목적이 ‘극락왕생의 발원’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밖에 본고를 통해 논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자비심·성불·고통극복의 발원’ 등이었다. ‘기도’의 경우는 모든 종교에 있는 신앙행위라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가 없어 재론하지 않겠다.

본고에서 논자는 작품을 집필하기 전후에 실연과 결핵으로 인하여, 자살 충동 등의 난관을 극복하고자 했던 생사관을 지닌 倉田가 염불과 기도라는 ‘타력신앙’의 요소가 강한 신행을 통하여 이를 극복해나갔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울러 같은 불교권에서도 염불과 기도는 타력적 불교라 할 정토계에서 유독 크게 보이는 독특한 요소인 바, 이런 내용이 작품 속에 빈번하게 구사되고 있음을 보면 倉田의 내면세계가 얼마나 淨土眞宗의 신행을 충실히 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

---

せられた運命にかえたではないか。「仏様み心ならば二人を結び給え」との祈りが、仏の耳に入り、心を動かせばお前たちの運命になるのだ。それを祈りがきかれたというのだ。そこに微妙な祈りの応驗があるのだ。



본자는 본론을 통해 작가가 지니고 있는 작품 『出家とその弟子』에 나타난 ‘염불’ 행의와 ‘기도’ 의식을 몇 가지 인용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염불’ 행의와 ‘기도’ 의식이 타력신앙이라는 면에서 대체로 상통되기도 하지만, 양자 사이에 차이 또한 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염불’이 발원·왕생할 수 있는 방편이고 ‘기도’는 인간의 모든 염원을 이룰 수 있는 방도라는 점에서 그렇다. 양자 사이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차이라면, 淨土眞宗에서는 사상적으로 기도보다는 염불을 더 우선시해 왔다는 점이다. 그러기 때문에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 불교만의 신행인 염불에 대한 행의가 작품의 앞쪽에 묘사되어 있는 반면, 기독교와 불교 등 모든 종교가 지니고 있는 공통적 신행이라 할 기도 행의는 비교적 뒤쪽에 실려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점은 작가 倉田의 의도적인 작품 구성상의 소산으로 보이는 바, 그것은 淨土眞宗가 ‘타력신앙’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염불’과 ‘기도’야말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실천적 자세라고 생각했던 倉田의 의도가 작품을 집필할 당시에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參考文獻】

- 曹起虎(2001.3), 「日本近代文學과 佛敎」, 『日本語文學』<第10輯>, 韓國日本語文學會. pp.185-186
- \_\_\_\_\_(2003.2), 「『出家とその弟子』의 思想的 考察(Ⅰ)」, 『日本文化學報』<第6輯>, 韓國日本文化學會. pp.243-259
- \_\_\_\_\_(2003.8), 「『出家とその弟子』의 思想的 考察(Ⅱ)」, 『日本文化學報』<第18輯>, 韓國日本文化學會. p.108, pp.107-122
- 石田瑞麿(1996), 『敎行信証入門』, 講談社. pp.42-49
- 伊藤博之(昭58.12), 「『歎異抄』」, 『國文學解釋と鑑賞』, 至文堂. pp.110-111
- 今成元昭(昭52), 「淨土敎周邊(一) — 倉田百三『出家とその弟子』」, 田村圓澄·田村芳朗 編 『日本仏敎のこころ』, 有斐閣. p.273
- 稻垣友美(1990), 「解説」, 倉田百三 『法然と親鸞の信仰』<下>, 講談社. pp.198-199
- 柏原祐泉(2001), 『日本仏敎史 近代』, 吉川弘文館. pp.130-132
- 倉田百三(平11), 『出家とその弟子』, 新潮社. p.40, p.41, p.43, p.50, p.53, pp.78-79, pp.175-177, pp.178-179, pp.181-182, p.182
- \_\_\_\_\_(1994), 『倉田百三選集』<第1卷>, 日本図書センター. pp.102-103, pp.212-239
- \_\_\_\_\_(1990), 『法然と親鸞の信仰』<上>, 講談社. pp.1-165
- \_\_\_\_\_(1990), 『法然と親鸞の信仰』<下>, 講談社. p.77, pp.1-209
- 劍持武彦(2002), 「‘和魂洋才’への疑問」, 安森敏隆ら 編 『キリスト敎文學を學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史. p.180

- ・親鸞 著・金子大榮 校訂(1997), 『教行信証』, 岩波書店. pp.5-6
- ・田中實(1990), 「『出家とその弟子』と念佛思想」, 『國文學 解釋と鑑賞』<第55卷 12号, 至文堂 p.51
- ・千輪慧(1984), 『歎異抄と親鸞』, 勁草書房 pp.25-26
- ・名畑応順ら 校注(1978), 『親鸞集 日蓮集』<日本古典文學大系 82>, 岩波書店. p.192,  
pp.192-193, p.196
- ・藤吉慈海(昭54), 「西田天香の思い出」, 『禪と念仏の間』, 春秋社. p.30
- ・宮城顛(1996), 『親鸞思想の普遍性』, 法藏館 pp.1-103
- ・安丸良夫(1999), 『日本の近代化と民衆思想』, 平凡社. p.87
- ・吉田久一(平8), 『清澤滿之』, 吉川弘文館 pp.202-265
- ・吉田精一(1983), 「この本について」, 倉田百三 『出家とその弟子』, 偕成社. p.1
- ・廣松渉ら 編(1998), 『岩波 哲學・思想事典』, 岩波書店. p.13
- ・日本國語大辭典 第二版 編輯委員會 編(2001), 『日本國語大辭典』<第二版 第6卷>, 小學館  
p.1217
- ・日本聖書協會(2000),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 第2章 第5節 <『聖書 口語譯』 p.257
- ・David Jasper 著・李俊鶴 譯(1999), 『문학과 종교연구 서설』, 동인. p.9

## 要 旨

大正時代に文學的に活躍した倉田百三(1891-1943)は、とりわけ親鸞(1173-1262)の影響を大きく受けて、文學のフィールドに登場した文學家である。當時、活潑な文學的活動をしてきた倉田は、近代を生きながら仏敎文學をより大きく發展させる役割を果たした人物であるが、今度は倉田にとって『出家とその弟子』の思想的な面を<念仏と祈禱を中心としている‘他力信仰の意識’>というタイトルでさぐってみた。

廣島縣に生まれた倉田は、東京第一高校の哲学科を志望したが、その後、人生の問題にもっと眞剣に取り組む青年期において、哲學的悩みと心の動搖によって、純眞であるだけに煩悶を深くした。少なくとも三回以上の失戀を経験したのが原因になって、倉田は結核にかかり、いわゆる‘人間不信’に悩み傷ついた。

このような状況の変化によって、彼は、京都の隣りの一燈園を訪ね、西田天香(1872-1968)の影響も受けられるようになり、上京する途中、西田幾多郎を訪ね、以後『西田哲學』への傾向を深めた。

倉田は、このような世知辛い生活のなかで、廣島灣の隣りの丹那という所に轉地して、『出家とその弟子』の執筆を完成した。『歎異抄』の敎えを『序曲』六幕と十三場で戯曲化したこの『出家とその弟子』は、<死ぬるもの—ある日のまぼろし—>という基督敎的な思想が取られている『序曲』の一幕が附加されている。しかし、作品のうちで念仏や祈禱をはじめ、執着・娑婆・煩惱などの仏敎的語彙が使われていると思われる。それは、當時の倉田の心のすべてが基督敎的だとは言えず、むしろ、倉田がだんだん仏敎的な考え方へ進入した立場であると感ぜられる。

この作品の内容には、あくまでも、主題や素材などが非常に仏敎的な面が取られているから、仏敎思想の流れははっきりなしにつづいていると思われる。ところが、作品のうち、『第一幕第二場』をみると、念仏の場面が主に現われているが、祈禱の行儀は『第五幕第二場』に頻繁に現われている。

この『出家とその弟子』を通じて、倉田が若い時の闘病生活のなかで直接實行した念仏や祈禱の行儀が他力信仰というかたちで詳しく描寫されているのは當然なことだといえよう。

勿論、このうち、念仏の結果は往生できるということであり、祈禱というのは、キリスト敎や仏敎だけではなく、あらゆる宗教においてあるものにもかかわらず、論者は、この作品で最も大事なのはやはり念仏や祈禱であると言えよう。ここに作家の倉田の宗教的實踐の精髓があるからである。

キーワード： 他力信仰、南無阿彌陀仏、念仏の場面、祈禱の行儀、仏敎思想、極樂往生、キリスト敎思想

투 고 : 2005. 11. 30  
1차 심사 : 2005. 12. 10  
2차 심사 : 2005. 12. 31

住 所 : (570-080)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245-3번지 리젠시빌@ 301 동 301 호

電 話 : 063-840-1533(연구실)/011-9437-7617(휴대폰)

e-mail : aoisora@wonkwang.ac.kr

КСІ